

철학도서 한우물 파기 20년의 고집과 끈기

경영합리화로 전문출판 어려움 극복하는 서광사

우리나라 철학도서의 대표적인 출판사로 이름있는 서광사는 지난해를 보내며 두 가지 흐릿한 일이 있었다. 하나는 "20년을 오로지 한우물을 파왔던" 공로가 인정되어 "한해동안 의미있는 출판물을 다수 낸 출판사"에게 주는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제작상'을 수상한 '영예'를 안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늘 적자만을 보다가 '드디어' 조금이지만 이익을 남기는 '경제'적인 성과를 얻는 점이다.

서광사는 원서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던 시절 한울, 김영사, 비봉 그리고 현재 유수의 이공계출판사들처럼 일명 '리프린트' 업으로 출판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물론 그때도 철학분야의 원서들만이 대상이었다. 12, 3년 전부터 단행본 출판도 시작, 철학전문출판사로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한 지 오래다.

"3년전부터 리프린트업은 다른사람에게 주어 분가를 시켰습니다. 단행본 출판에만 몰두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김신혁(55) 사장이 적자가 예정돼 있는 철학서 출판에 뛰어들어, 총 종수가 200종이 넘도록 단행본출판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되도록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월 2, 300만원이라도 보태줄 수 있었던 그 힘이 컸는데, 그마저도 '쥐버리고' 白衣從軍을 자칭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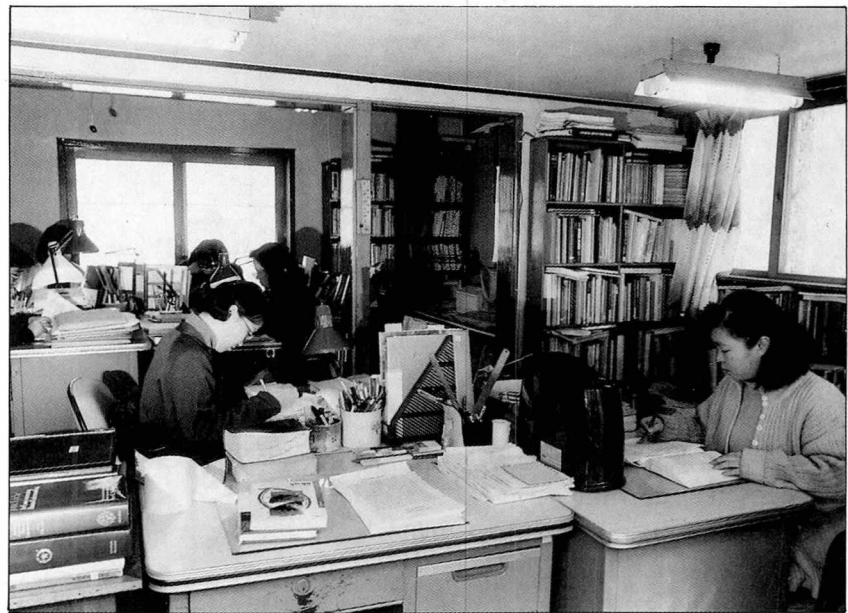
"모든 계산서는 공개된다"

서광사의 260여 책들은 철학개론, 철학입문, 고대철학, 중세철학, 근세철학, 현대철학, 현상학, 해석학, 존재론, 인식론, 인간

학, 정치철학, 역사철학 등 30여개가 넘게 쪼개고 또 쪼개어 잘 세분된 항목속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들어 있다. 그외에 '어린이를 위한 철학' 시리즈,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들이 있고, 최근 우수한 학문적 성과인 박사학위논문들이 사장돼 가는 현실에 안타까워 기획해본 '철학학위논문' 시리즈 등이 별개의 항목을 이루며 있다.

서광사가 지난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이 유난히 잘 팔려서가 아니라 리프린트업에서 손을 땀으로 해서 더 커진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년간 철저히 경영합리화를 해온 결과였다. 편집과 영업 등 업무의 각 과정을 구석구석 훑어보고 불필요한 '군살'을 빠짐없이 도려냈던 것.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책의 인지를 저자와의 합의하에 붙이지 않고 판매된 권수에 해당하는 인세를 1년에 두번 '후불'로 지급키로 했다. 물론 여기에는 인세후불로 인한 다소의 손해도 받아들일 줄 아는 저·역자들과 "이 출판사는 절대 속이는 일이 없다"는 철저한 신뢰가 바탕되어야 했었고, 그들의 신뢰는 20년간 서광사가 심어준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꼭 1천만원이 절약됐다고 한다.

다음은, 책의 운송·배분을 출판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하여 전국 해당서점에 뿌림으로써 대외영업 업무를 없앤 점이다. 대신 모든 업무를 컴퓨터화하여 서점의 수금문제, 저자와의 영수관계를 팩스·편지 등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서면처리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최대로 줄여나간 것이다. 여기



에는 타던 차도 지난해 헌납해버린 김사장의 '특급성' 감량작전도 한몫했다.

출판업계에선 드문 주 5일 근무

서광사 사람들은 편집부 4명, 경리, 컴퓨터, 창고 각 1명 등 사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대학의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과 3월초의 두 주, 8월말과 9월초의 두 주 모두 합해 1년에 여덟번 토요일근무하는 것을 빼고는 1주 5일만 근무한다. "취재중이라도 퇴근시간이 되면 나갈 거다"는 공포성 농담처럼 서광사 사람들의 '칼 출근, 칼 퇴근'은 유명하다. 그렇다고 못다한 일을 집으로 가져가지도 않는다. 출판업의 특성상 불가해보이는 이런 업무환경은 서광사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그것은 "1/3은 회사, 1/3은 가족, 1/3은 사회봉사"를 주장하는 김사장의 생활신조와 다소 관련 있다. 카톨릭신학대 출신으로 어찌면

사제의 길을 걸었는지 모르는 독특한 이력의 김사장은 가족생활도 카톨릭봉사활동도 일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다. 대부분 한번 들어오면 일 자체가 맞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근속하는 편이다.

서광사의 또하나 이색적인 점은 회계장부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점. 까다로운 세무조사에서도 무서울 것 하나 없는 깨끗한 경영을 자랑삼는다. 사장이라 해서 임의로 돈을 더 갖다줄 수 없고, 말단직원도 돈이 드나드는 회계가 궁금하면 언제든 펼쳐볼 수 있다.

요즘의 서광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의 저작물을 희랍어 라틴어 전공자들이 나서 원전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이 분야 원전번역이 드문 우리 학계에 귀감이 될 것이다.

—정혜옥 기자

▶ 베스트셀러를 잘 만드는 회사!

바다출판기획

출판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침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십니까?
좋은 책, 많이 읽히는 책을 찾고 계십니까?
바다출판기획을 만나보십시오.

바다출판기획에서는 좋은 책, 화제의 책, 그래서 많이 읽히는 책만을 만듭니다.

☎ 518-6534 팩시밀리 518-653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8-10호 화성빌딩 2층

- ▶ 컴퓨터 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책 베스트셀러 (92년 1월부터)
- ▶ 모델 김동수 스타로 대중 만든 책, 베스트셀러 (93년 2월부터)
- ▶ 남자 옷입기를 다룬, 최초의 일반물, 오대일 간지가 격찬한 책, 베스트셀러 (93년 7월부터)
- ▶ 지독하게 기계를 싫어하는 이현세가 컴퓨터를 배운 이야기, 베스트셀러 (93년 7월부터)
- ▶ 이현세 원작 소설, 현재 화한 책, 현재 미니시리즈로 망하고 있는 그 작품, 두 달 만에 부가 팔린 재미 있는 소설!
- ▶ 밀란 쿤데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번역 소설, 스테디셀러, '바다'는 밀란 쿤데라의 독점 대리인입니다.